

인식론의 자연화

황 희 숙

I.

인식론을 자연화시키자는 것은, 우리가 지식에 대해 고찰할 때, 자연주의적 태도를 취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콰인(Quine)에 있어 자연주의적 태도는 듀이(Dewey)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인식론을 자연과학 특히 경험심리학에 동화시키자는 주장으로 표출된다. 즉, 자연주의(Naturalism)는¹⁾ 콰인에 있어 제1철학의 이념추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지식, 정신, 의미는 그것들이 관계맺고 있는 동일한 세계의 부분이며, 자연과학을 고무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적 정신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자연과학에] 선행하는 철학의 여지는 없다.”²⁾

인식론을 자연화시키자는 콰인의 제창이후, 자연화의 필요성, 계기가 과연 있는가 하는 의심은 물론, 그 심리학적 전환이 갖는, 부정적 함축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어 왔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콰인식의 인식론의 자연화를 지지해주는 논증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한편, 새로운 지위와 무대를 갖춘 인식론적 작업에 대해 동정적 해명을 하고자 한다.

II.

콰인의 자연화된 인식론, 즉 현행 과학탐구의 일부분으로서 수행되는 지식의 분석에 대한 그의 시각을 정당화 해주는 것은 콰인 자신의 몇가지 주요 논제들이다. 콰인은 인식론을 자연화시킴으로써 철학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었는데, 그러한 철학의 새 가능성에 대한 콰인의 견해를 평가함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바로 경험론의 독단에 대한 그의 비판과 “전체론적 전환”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콰인의 비판대상인 논리실증주의자들의 환원 프로그램, 즉 모든 과학의 명제를 그 관찰적 기초로 환원하려는 계획의 부침을 먼저 살펴보자.

*이 글은 1986년 4월 분석철학 분과 50차 월례 발표회에서 읽혀진 바 있다. 당시 참석한 분들의 여러가지 도움말에 감사드린다.

주 1) 사회과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있어서, “자연주의”는 사회과학이 그 방법이나 목적에 있어 자연과학과 구별될 수 없다는 입장 즉, 방법론적 일원론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 자연주의는 관념론에 대립되는 용어로, 정신이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일컫는다.

2) W. V. O. Quine, “Ontological Relativity” p.26. 1968.

1.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인식론적 과업은 세계에 대한 자연적 지식의 경험적 토대를 확실하게 정초지우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 작업은 ‘과학의 논리(logic of science)’를 명백히 하는 일이었다.³⁾ 과학의 언어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곧 과학적 개념의 전체계의 합리적 재구성(rational reconstruction)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경험에 직접 주어진 것으로부터 지식의 체계를 구성해내려는 그들의 작업은 ‘논리적 재구성주의(Logical Reconstructionism)’라 불린다. 그런데 모든 지식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기록명제(Protokollsätze)의 본질을 둘러싸고 이견이 비엔나학단 내부에서 노출됨에 따라 점차 환원론은 몰락의 과정을 밟게 된다. 환원의 계획 또는 지식의 논리적 재구성 계획은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i) 합리적 재구성의 토대의 절대적 확실성에 대한 요구

ii) 확실성의 포기, 즉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지식의 객관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잠정적인 기록명제의 선택

i)과 ii)는 환원론의 두 형태 즉, 현상론과 물리주의의 입장이며, i)에서 ii)로의 이행은, 노이라트(Neurath)의 영향을 받은 카르납(Carnap)의 환원론의 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카르납이 초기에 경험적 지식의 기초로 감각자료언어(Sense-datum language)를 택했던 것은, 과학에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희망때문이었다. 현상론에서는 기록명제가 지각에 관한 명제로 여겨지므로, 그 기록명제는 원초적이다. 즉, 경험에 직접 주어진 것을 기술하므로 정당화가 달리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명제들을 위해 ‘의심되지 않는 기초’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상론의 난점에 대한 인식과⁴⁾ 노이라트의 영향으로 카르납은, 원초적기록명제(primitive protocol sentences)의 경험적 확실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물리주의를 표방한다. 관찰어휘(observation terms)들로 이루어진 관찰보고문이 물리주의자의 기록명제가 됨에 따라 유아론의 문제는 피할 수가 있으나, 그 명제는 논리적으로 잠정적이며, 경험적으로 시험가능하므로 원초적 기록명제가 누리는 절대적 확실성을 잃는다. 노라이트는 순수한 기록명제(pure protocol sentences)의 가능성을 부인한다: “결정적으로 확립된 순수기록명제를 과학의 출발점으로 취할 도리는 없다. tabula rasa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넓은 바다위에서 배를 고쳐야만 하고, 그것을 부두에서 분해할 수 없으며, 또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할 수도 없는 수부좌도 같다.”⁵⁾ 그런데 이 비원초적인 물리주의자의 기록명제는, 자체가 절대적 타당성을 갖지는 못하나 과학의 객관적 토대로 작용해서, 모든 과학적 명제는 이 관찰문장에 의해 확증가능하다고

주 3) R. Carnap, “Logical Foundations of the Unity of Science” 1938. pp.42-43.

4) 현상론적 환원론에서는 성향용어나 이론용어를 유의미한 언어로 과학에 도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cf. Carnap, “Testability and Meaning” (1936). “The Methodological Character of Theoretical Concepts” (1956)

또, 현상론적 언어로 표현되는 관찰보고의 사용은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5) O. Neurath, (1932), “Protocol Sentences” p.201.

여겨졌다.

그러나, 그 관찰문장으로부터 이론적 지식에 이르는 끈 [즉, translational reduction] 도 단단하지 못함은 카르납의 이론용어의 도입문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⁶⁾ 즉, 철저한 환원론의 실패는 경험주의자언어 안에 이론용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며, 따라서 경험과학의 명제에 대한 관찰(관찰언어)의 환원가능성의 믿음은 포기될 수 밖에 없는 희망이다.

2. 좌인에 의하면, 환원프로그램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문장이 경험의 범정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론이 환원론의 거부를 정당화하는 논거는 아니다. 즉,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환원론의 실패는 카르납의 뒷걸음질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다. 환원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전체론은 좌인에 의해 아주 비유적으로 제시될 뿐이나, 우리는 듀앙(Duhem)의 과학사적 작업이 좌인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환원은 성공할 수 없는 시도며, 우리가 전체론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환원론의 몰락을 재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⁷⁾ 환원론과 전체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환원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생각은 개별문장의 확증 가능성이 다. 물리주의자의 환원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개별문장의 경험에 의한 시험·확증가능성의 요구를 내포한다: 이런 생각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 전체론이다. 바로 이 전체론이 인식론과 철학의 본질규정에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식론적 전체론은 통상 좌인-듀앙논제(Quine-Duhemian Thesis)라⁸⁾ 불린다. 어떤 명제든, 개별명제가 아닌, 이론이라는 더 큰 덩어리로서만 관찰·실험에 있어서 그들의 증거를 갖는다는 전체론을 받아 들일 때, 우리는 한 이론체계의 특별한 한 명제의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부인하게 된다. 전체론은 문장의 진리치의 모든 부과를 이론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리므로, 모든 문장의 진리치는 원칙상 수정가능(revisable)하다. 전체론은 이론미결정성의 논거가 된다: “이 전체론 논제(Holism Thesis)는 미결정성논제(Underdetermination Thesis)를 믿음직스럽게 만들어준다. 만약, 반대되는 관찰에 부딪혀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이론에 대한 여러가지 적절한 수정들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

주 6) 이론용어를 위한 상용규칙(C-rules)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즉, 특별한 이론문장에만 경험적해석을 부여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론용어는, 그것을 사용한 이론문장이, 그 문장과 그 이론의 나머지로 부터 관찰문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일 때 유의미하다고 말해진다.

Carnap. (1956), “The Methodological Character of Theoretical Concepts” p.67.

7) Carnap 자신도 이미 Duhem 과 Quine 의 전체론과 동일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cf. “Philosophy and Syntax” (1937) Part V. of The Logical Syntax of Languages tr. by A. Smeaton, RKP, p.318.

8) 전체론은 다음 문장들로 대표된다.

“어떤 명제도 그 동료들과 떨어져서는, 확증이나 정보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외부세계에 대한 우리의 명제는 감각경험의 범정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서만 대면한다. “Quine, Two Dogmas of Empiricism” p.41, (1951)

“세계에 대한 명제는 보통 또는 언제나 독립적으로 소유한다고 할 수 있는 독립된 경험적 귀결들을 갖지는 않는다” Quine, “Epistemology Naturalized” p.82. (1969)

면 아마도 모든 가능한 관찰들은 이론을 유일하게 결정하는데 불충분하다.”⁹⁾ 물리이론이 모든 가능한 관찰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한 이론에 대해서도 그것과 경험적으로 동등하나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또 술어의 재해석에 의해 논리적 동치가 될 수 없는 다른 대안이론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관찰증거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가설 명제를 포함하는 라이벌 이론을 동등하게 반증·확증한다는 이 미결정성론은¹⁰⁾ 콰인의 인식론의 자연화를 위한 초석이 된다. 즉, 환원가능성에 의지하는 논리실증주의자의 인식론, 즉 경험적 기초에 의한 자연적 지식의 정당화이론인 기초론(Foundationalism)이 잘못된 것임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인식론을 모색해 볼 계기를 만들어준다.

경험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는 다수의 동등한 이론이 존립한다는 미결정성론은 지식의 정당화 문제에 어떤 의의를 갖는가? 기초론이 나타내는 것은 “자연과학을 경험 위에 확고하게 논리적인 방식으로 기초지우려는 희망”¹¹⁾ 이다. 이 희망은 곧 자연에 대한 진리를 감각증거로부터 이끌어내려는 것이자, 경험에 의해 이론을 정당화시키려는 희망이다. 그러나 증거와 이론 사이의 추론관계는 기초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확실하지 못하다. “어떤 문장이 관찰, 논리학, 집합론의 술어로 표현된다(couched)는 단순한 사실이, 그 문장이 논리학과 집합론에 의해서 관찰문장으로부터 증명될(proved)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¹²⁾ 이런 사실은, 미결정성문제에 의해 분명히 표현된다. 즉, 관찰문장의 집합에 의해 증명되는 다수의 참인 이론들이 존립하므로, 관찰적 진리가 이론적 진리를 결정할 수 없으며, 관찰·경험에 의해 이론이 증명·정당화되거나, 그 진리치가 유도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론미결정성론은, 경험으로부터 이론의 정당화가 확정적으로 유도되는 직선적 관계를 부정한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이론적 진리가 동일한 관찰적 진리로부터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콰인 자신은 미결정성론에 위와 같은 역할을 지우지는 않았고, 다만 환원의 불가능성에 의한, 합리적 재구성론의 실패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미결정성론이야말로 논리의 비약을 메꾸어 주며, 기초론이 결정적으로 논박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자연의 진리에 직접경험의 완전한 권위를 부여하려는 희망”¹³⁾ 은 포기되고, 인식론의 동기를 주었던, 데카르트식의 확실성에 대한 요구(Cartesian quest for certainty)도 그 이유가 소실된다.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 혹은 경험적 느슨함(empirical slack) 때문에, 세계에 대한 자연적 지식의 진리의 증명이나 정당화는 성공할 수 없는 시도로 인식되며, 따라서 인식론이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콰인에 의하면, 경험으로부터 자연에 대한 진리를 연역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여도 또는 경험에 의

주 9) Quine, “On Empirically Equivalent Systems of the World”, 1975. p.313.

Gochet (1982), “Five Tenets of Quine”, the *Monist*. v.65

n.1. p.14 에서 재인용

10) 줄고,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철학논구 제13집, 1985)에서 미결정성론의 논거, 논제 자체의 해명문제, 논박의 가능성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11) Quine, “Epistemology Naturalized” (1969), p.74.

12) Quine, 위논문 p.74.

13) Quine, 위논문 p.74.

한 이론의 진리결정, 정당화를 더이상 문제삼을 수 없어도, 인식론적 탐구가 계속될 수 있다. “인식론은 새로운 무대와 정화된 지위에서 여전히 계속된다.”¹⁴⁾

인식론적 작업의 성격에 대한 과인의 언명은 상당히 도전적이어서, 이론 구성에 대해 “이 구성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왜 안되는가? 왜 심리학에 자리잡으면 안되는가?”¹⁵⁾ 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동기를 갖는 인식론자들은 인식론이 왜 그런 운명에 처해져야 마땅한지 오히려 되돌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자연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이 없지 않음을 보여야 했다. 이 글에서는 과인 자신의 몇가지 논제들이 새 인식론을 제창하는 그의 입장의 토대임을 확인하였다. 결국 과인의 “전체론적 전환(holistic turn)”이 우리로 하여금 이어서 자연주의적 전환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Ⅲ.

인식론의 자연화는 곧 과학적 탐구와 철학을 동일시함으로써, 인식론을 과학에 부수적이며, “자가적용된 과학(only science self-applied)”¹⁶⁾ 으로 만드는 일이다. 바다위에 뜬 채로 배 안에서 배를 수선해야 하는 수부처럼, 지식의 더미를 검토하는 인식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현재의 과학이론이다. 즉, 인식론은 현행 과학탐구의 일부분으로서 수행되어지는 것이다.

과인의 자연주의(Naturalism Thesis)는 다음 문장에서 잘 나타난다.

“철학은 과학을 위한 선험적(a priori) 입문이나 토대가 아니라, 과학에 연속적이다. 과학과 철학은 같은 배안에 있다. 외부의 요지는 없으며, 제일철학(first philosophy)도 없다.”¹⁷⁾

“인식론자가 됨은 인간의 과학의 획득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경험적 심리학자(empirical psychologist)가 됨이다… 인식론은 자연과학안에, 심리학의 한 장으로 포함된다.”¹⁸⁾

이렇게 일견 급진적인, 과인의 인식론 규정에 대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의혹을 다음에서 풀어보도록 하자.

1. 과인에 의하면, 철학자도 개념체계를 갖지 않고서는 과학과 상식의 근본적 개념체계를 탐구하거나 개조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런 인식론적 탐구를 위한 매개물로서, 우리가 개량하고자 애쓰고 있는 바로 그 이론-그 시대에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 그 이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¹⁹⁾ 철학자에게는 그에게 맡겨진 개념체계 외부에 어떤 우월

주 14) Quine, 위논문 p.82.

15) Quine, 위논문 p.75.

16) Quine, “Replies”, p.293. (1968)

17) Quine, “Natural Kinds” 1969. pp.126-127.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U.P.

18) Quine, *The Roots of Reference* 1974, Open Court Publishing Co. pp.2-3.

19) Quine, “Posits and Reality” p.254 (1960)

한 지위 (Vantage point)가 없으므로, 철학자에게 과학이외의 선험적 탐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데카르트와 달리, 철학하는 중에도 시대의 신념을 소유하고, 그러면서 줄곧 과학적 방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에 의해 그 신념을, 더 나은 것을 위해 여기저기 변화시킨다.”²⁰⁾

그러나, 과학의 토대에 관심을 갖는 인식론자가 과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학외적인 합리성의 기준에 호소하지 않고, 과학을 사용한다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깨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순환성에 의한, 인식론의 자연화에 대한 반박에 대해 콰인은, 그것은 단순히 관찰과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되지 못한다고 답한다. 즉, 그 반박은 관찰로부터 과학을 연역하려 꿈꾸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는 과학과 관찰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그 과학의 모든 발견과 추측들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인식론적인 문제의 제기자체가 과학의 수용에 의존하므로, 인식론은 결코 과학을 전 반적으로 의심할 수는 없다.²¹⁾ 넓은 인식론과 콰인의 인식론의 차이는 심리학의 자유로운 사용인데, 그것은 콰인이 인식론을 과학 내부의 작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식의 의심은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신념을 보유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도달했는가를 물을 수 있다.”²²⁾

2. 과학보다 우월한 제일철학의 이상을 포기한 자연주의적 철학자는, 그의 물음이 과학 내에서의 물음일 뿐이므로 과학자의 방법과 실재론을 따른다. 그러면 과연 새 인식론은 어떤 과업을 갖는가?

자연주의적 인식론자의 과제는, 지식의 정당화가 아니라, 감각증거만을 갖고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 대한 이론에 도달하는가를 설명하는 일로, 자기회외에 맞서 과학을 내부로부터 방어하는 일이다. 과학이론과 관찰간의 관계해명에 있어 콰인의 전략은 발생론적 접근(genetic approach)이다. 즉, “어떻게 이론언어가 습득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인간의 과학이론에 대한 통제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 언어의 습득과정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관찰과 과학이론 간의 “증거관계”가 실제로 습득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²³⁾

그런데 여기서 언어습득(language learning)과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에 대한 콰인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행동주의적이다.²⁴⁾ 인간이 제한된 정보로부터 어떻게 과학

주 20) Quine, *Word and Object*, pp.24 - 25.

The MIT Press, 1960.

21) cf. 콰인은 과학을 반박하기 위해 과학을 전제하고 있다는, 달리 말해서 회의론도 과학의 결과라는 Quine의 논박(1975)

Quine, “The Nature of Natural Knowledge”, pp.67-68.

22) 위논문, p.68.

23) Quine, 위논문, pp.74 - 75.

24) 행동주의(Behaviorism)는 자연주의의 한 측면인데, 다음 문장들에서 잘 나타난다.

• “우리는 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상황하에서의 타인의 드러나 행위의 증거위에서만, 언어를 습득한다.” *“Ontological Relativity”* p.26.

• “드러난 행위에 대한 인간의 성향에 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의미도, 의미의 차이도 유사도 없다.” 위논문, p.29.

• “단어의 의미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행동적) 감각증거에 의존한다” *“Epistemology Naturalized”* p.75.

에 도달했는가 하는 이론구성의 문제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인식론자는, 언어습득이나 지각신경학(neurology of perception)과 많은 관련을 갖는 설명에 도달하게 된다. 즉,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명하는 언어행위의 성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심리학이므로, 이론언어의 습득을 묻는 인식론적 탐구는 심리학의 한부분이 된다.

3. 철학과 인식론을 과학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철학의 방법을 과학과 동일시하는 자연주의자 콰인에 이르러, 인식은 경험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주의적 증거와의 관계가 해명되어지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콰인은 “진리이론으로서의 경험론은 완전히 실패하며, 그것은 잘 떼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두가지 도그마를 뺀 경험론은 증거이론으로서 존속된다.”²⁵⁾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콰인이 인식론과 심리학을 기탄없이 교체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손상시키지 않았는가 하고 반발할 수 있다. 즉, 콰인을 쫓는 철학자는, 인식론을 버리고 과학의 편을 드는,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중요시 되어온 가능성 한가지를 너무도 간단히 포기해버린 사람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또 자연주의적 인식론자는 안락의자의 심리학자가 됨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퍼트남(Putnam)은 콰인이 철학의 합리적 활동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철학을 산출하였다고 비난한다. 신념의 ‘정당화’ ‘합리적 수용가능성’ 등의 개념이 제거된다면, 우리의 명제·사유는 단순한 발성·소음 이외의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퍼트남은 콰인의 입장을 “인식론적 제거주의(epistemological eliminationism)”라 명명한다. 퍼트남에 의하면, 콰인은 규범(the normative)을 제외시키는데, 이 규범적인 것의 제거는 정신적 자살의 시도이다.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을 갖지 못하며, 특정시대와 장소의 언어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바의 옳고 그름을 그 시대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²⁶⁾

그렇지만 콰인 자신은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²⁷⁾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콰인보다는 오히려 퍼트남을 의심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i) 콰인은 규범에 대한 허무주의자가 아니다. 규범과 과학의 관계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색은 규범과 경고에 지배 받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획득하는 과학체제에서 생겨난다. … 우리의 과학적 발견이 바로 규범적 힘을 갖고, 텔레파시나 천리안의 주장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한다. 과학이 진전함에 따라 규범은 어느 정도는 변화한다.”²⁸⁾ 즉, 어떤 과학체제의 발전은 규범에 의해 인도되나, 그 규범

주 25) Quine, “On the very Idea of a Third Dogma” 1981. p.39. in *Theories and Things* Harvard U. P 1981.

26) Putnam, “Why Reason Can’t be naturalized” pp.245-247. (1983)
cf. Putnam “Philosophers and Human Understanding” p.200. (1981)

특정신념이 합리적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문화의 합리성의 규범이 아니라 “합리성의 이상이론”이다.

27) Putnam(1983), 위논문, p.244.

28) Quine, “Responding to M. J. Cresswell” p.181. (1981)
rp. in *Theories and Things* Harvard U. P. 1981.

이와 관련해, “Epistemologh Naturalized” p.83의 과학과, 인식론의 상호포함관계에 대한 언명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자체는 과학적 발견들에 의해 정당화 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규범관을 무어라 이름해야 할지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과인은 규범의 포기가 아니라, 규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듯하다.

ii) 과인의 자연화된 인식론은 명백히 경험심리학의 한 분과로 분류되며, 골드만(A. I. Goldman)에 있어서는 캠벨(Campbell)과 삐아제(Piaget)의 작업과 더불어 “경험적, 기술적 인식론”으로 분류된다. 이 분과에서 심리학이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함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골드만에 따르면 심리학은 또한 “규범적 인식론”에도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중대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²⁹⁾ 만약, 그가 주장하듯이 심리학과(모든) 인식론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한다면, 인식론이 심리학에 동화되어 버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즉각적인 저항감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트남의 비판은 누그러지지 않으리라고 짐작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철학의 합리적 행위와 과학을 구분하고자 하며, 과학주의(Scientism)에 대한 맹렬한 반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자의 임무란, 철학자에게 개념체계 밖의 요지가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 [과학자]의 임무와 철저히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한 과인의 말을 상기해 보자.³⁰⁾ 그렇다면 퍼트남은, 그 역시 개념체계 밖의 소위 ‘신의 관점’을 인정치 않는 내재주의자로서 어떻게 철학의 영역을 우리의 개념적 배(Boat)인 과학과 비연속적인 특별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IV.

이상의 II와 III에서는, 왜 새로운 어떤 인식론이 모색되어야 하는가를 밝히고, 그 인식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과인의 자연주의의 입장을 동정적으로 해석하고 옹호해 보려 하였다. 과인의 입장은 인식론적 작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며, 철학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이다. 인식론의 자연화의 제창은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재구성의 작업을 피한 실증주의의 몰락으로부터 인식론을 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과인이 증거의 객관적 원천으로서의 ‘관찰’의 개념에 회의하는 핸슨(Hanson)이나, 쿤(Kuhn)의 입장을 “인식론적 허무주의 epistemological nihilism”³¹⁾로 배격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처럼, 제반 인식론적 문제들을 철학자들의 착각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든가, 로티(Rorty)처럼 기초론의 몰락으로부터 성급하게 인식론적 철학의 종언을 선언하기도 하는 분석철학내의 흐름에 비취볼 때, 과인의 입장은 오히려 온건한 방안이다. (물론, 자연화가 Quine 식의 탐구에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³²⁾

주 29) A. I. Goldman, “The Relation Between Epistemology and Psychology” Synthese 64. (1985)

30) Quine, *Word & Object* pp.275-276. 1960

31) Quine, “Epistemology Naturalized” pp.87-88.

과인에 대한 맹목적 반대자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할 듯 싶다: 귀납과 가설연역의 방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확실성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만이, 자연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극단적 상대주의나, 철학자체의 소실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만이 자연주의가 과격한 입장으로 비칠 것이다.

참 고 문 헌

- Carnap, R. (1936), "Testability and Meaning," rp. in: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eds. by H. Feigl & M. Brodbeck (Appleton-Century-Crofts Inc. 1953).
- Carnap, R. (1938), "Logical Foundations of the Unity of Scienc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I,I*, ed. by O. Neurath (Univ. of Chicago P., 1938).
- Carnap, R. (1956), "The Methodological Character of Theoretical Concepts," in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eds. by H. Feigl, M. Scriven, Vol. I (Univ. of Minnesota Press, 1956).
- Gochet, P.: (1982), "Five Tenets of Quine," *the Monist*, Jan. '82, v.65, n.1
- Goldman, A.I.: (1985), "The Relation Between Epistemology and Psychology," *Synthese* 64.
- Hempel, C.G.: (1958), "The Theoretician's Dilemma: A Study in the Logic of Theory Construction," rp. in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the Free Press, 1965).
- Neurath, O.: (1932), "Protocol Sentences," (tr.) G. Schick. rp. in: *Ayer* (1959) *Logical Positivism*, the Free Press.
- Putnam, H.: (1981), "Philosophers and Human Understanding," in *Realism and Reason* (Cambridge U.P., 1983).
- Putnam, H.: (1983), "Why Reason Can't Be Naturalized", in *Realism and Reason*.
- Quine, W.V.: (1951), (TDE) "Two Dogmas of Empiricism," rp.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1953, Harvard.
- Quine, W.V.: (1960), (PR) "Posits and Reality," rp. in *The Ways of Paradox and Other Essays* 1969 Columbia U.P.

주 32) 넓은 의미의 자연화에는 과인식의 도식 말고도 Piaget의 발생적 인식론(genetic epistemology) Campbell의 진화론적 인식론(evolutionary epistemology)등 다른 것들도 있다.

황 회 숙

- Quine, W.V.: (1960), (WO) *Word and Object*, The M.I.T. Press.
- Quine, W.V.: (1968), (OR) "Ontological Relativity," rp.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 Quine, W.V.: (1968) [Replies] "Replies," rp. in Davidson & Hintikka (eds.) (1969). *Words and Objections*, D. Reidel.
- Quine, W.V.: (1969), [EN] "Epistemology Naturalized,"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 Quine, W.V.: (1970) [RIT]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Journal of Philosophy*, 67, 178-183.
- Quine, W.V.: (1975), [NNK] "The Nature of Natural Knowledge," in S. Guttenplan (ed.), *Mind and Language* (Clarendon Press, 1975).
- Quine, W.V.: (1981), [Five] "Five Milestones of Empiricism," in *Theories & Thing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P. 1981.
- Schlick, M.: (1934), "The Foundation of Knowledge," rp. in Ayer (1959).
- Sosa, E.: (1983), "Nature Unmirrored, Epistemology Naturalized," *Synthese* 55, 49-72.